



6. 고대 동양 사상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나라는 작고 백성의 수는 적어야 한다. 백성은 생명을 소중히 여겨 멀리 떠나가는 일이 없고, 배나 수레가 있어도 타고 갈 일이 없으며 무기가 있어도 쓸 일이 없다.  
 (나) 큰 도가 행해져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도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또한 병들고 소외된 자가 버려지지 않고, 노인과 어린이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대동(大同)이라 한다.

— <보 기> —  
 가. (가)는 부국강병을 위한 군주의 역할을 강조한다.  
 나. (가)는 예(禮)가 자연스런 본성을 제약한다고 본다.  
 다. (나)는 인(仁)이 실현되는 도덕적인 사회를 강조한다.  
 리. (나)는 백성을 덕보다는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리    ⑤ 다, 리

7. (가) 사상의 관점에서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을 지인(至人), 신인(神人), 성인(聖人)이라 일컫는다. 지인은 물아(物我)의 구별이 없고, 신인은 공(功)을 의식하지 않으며, 성인은 명예를 무시한다.

		(A)		
	(B)			

(나) [가로 열쇠]  
 (A):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갈고 닦는 것. 공자가 주장한 군자의 자세. ○○안인  
 (B): 양심을 보존하여 본성을 함양하는 것. 주자의 성찰방법. ○○성찰  
 [세로 열쇠]  
 (A): ..... 개념

- ① 인위(人爲)를 통해 선한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② 타고난 참된 앎(良知)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③ 예법을 익혀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단속하는 것이다.  
 ④ 시비선악을 분별하여 무위(無爲)를 실천하는 것이다.  
 ⑤ 조용히 앉아 우리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을 잊는 것이다.

8.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 신은 자연이며 유일한 실체이다.  
 ② 갑: 인간은 자유의지로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  
 ③ 을: 신의 존재는 이성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  
 ④ 을: 이성으로 신을 인식하면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다.  
 ⑤ 갑, 을: 신앙보다 이성을 통해 신과 합일을 추구해야 한다.

9. 다음 한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세우는 것[立]과 깨는 것[破], 있는 것[有]과 없는 것[無] 등을 서로가 대립하는 차원에서 보지 않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 치우침 없이 귀일(歸一)시키는 것을 화쟁(和諍)이라 한다.

— <보 기> —  
 가. 종파 간 갈등을 원만하고 막힘없이 해소해야 한다.  
 나. 진리를 얻기 위해 종파 간의 시비(是非)를 가려야 한다.  
 다. 세속적 가치에 걸림이 없는[無碍] 행위를 추구해야 한다.  
 리. 사회와 분리된 엄격한 종교성과 자기의 해탈을 추구해야 한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리    ④ 나, 리    ⑤ 다, 리

10. 서양 사상가 갑,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쾌락보다 바람직하고 더 가치 있다는 것은 공리의 원리와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 쾌락을 평가할 때에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해야 한다.  
 을: 내가 말하는 쾌락은 방탕한 자들의 쾌락이나 순간적인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불안으로부터의 자유[ataraxia]이다.

- ① 모든 종류의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한가?  
 ② 물질적인 욕구 충족을 극대화해야 하는가?  
 ③ 개인적 쾌락보다 공적인 삶을 추구해야 하는가?  
 ④ 정신적 쾌락을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가?  
 ⑤ 개인의 이익과 사회 이익의 조화를 추구해야 하는가?

[11~12] 다음은 조선 시대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1.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은 이는 통(通)하고 기는 국한[局]된다고 본다.
- ② 갑은 칠정(七情)이 사단(四端)을 포함한다고 본다.
- ③ 을은 이는 귀(貴)하고 기는 천(賤)한 것으로 본다.
- ④ 을은 사단과 칠정을 기가 발하여 드러난 것으로 본다.
- ⑤ 갑, 을은 사단과 칠정에 모두 악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12. 다음 사상가가 갑, 을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사람은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기호(嗜好)를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며 덕행을 좋아하고 더러움을 부끄러워하는데, 이것을 성(性)이라 한다.

- ① 사덕은 사단을 실천함으로써 형성됨을 모르고 있다.
- ② 선행과 악행은 인간이 선택할 수 없음을 모르고 있다.
- ③ 기질을 교정하여 본성을 변화시켜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④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성인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⑤ 도덕적 실천보다 이론적 탐구를 중시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1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이성이 기개와 정욕을 완전하게 통제하면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철학자가 수호자와 생산자를 완전하게 통제하면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  
 을: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덕은 지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으로 나누어진다.

- ① 갑은 감정을 도덕적 행위의 유일한 동기로 본다.
- ② 갑은 감각적 경험을 진리 판단의 기준으로 본다.
- ③ 을은 참된 진리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④ 을은 실천적 지혜가 품성적 덕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본다.
- ⑤ 갑, 을은 덕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14.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은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은 평화를 보장해 줄 국가를 갈망한다.  
 을: 공산 사회에서는 계급과 국가가 소멸되며 생산력이 고도로 발달한다. 이에 따라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 ① 국가 권력이 최소화되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②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③ 국가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④ 국가 권력은 신이 부여한 절대적인 것임을 모르고 있다.
- ⑤ 국가는 구성원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모르고 있다.

15.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척도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척도이다.  
 을: 도덕 법칙은 동일한 상황에서 이런 행동은 허용하고 저런 행동은 금지하는 특수하고 개별적인 규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해야 한다.

< 보 기 >

		유용성이 도덕적 가치판단의 기준인가?	
		예	아니요
보편적 도덕 법칙이 존재하는가?	예	A	B
	아니요	C	D

- |   |   |   |   |   |   |
|---|---|---|---|---|---|
|   | 갑 | 을 |   | 갑 | 을 |
| ① | A | C | ② | B | A |
| ③ | C | B | ④ | C | D |
| ⑤ | D | B |   |   |   |

16.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인간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네 가지 우상을 제거하여 어떤 종류의 선입견에도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 경험을 토대로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여 객관적인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  
 을: 방법적 회의를 통해 더 이상 의심할 여지없는 확실한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 이성적으로 자명한 진리로부터 논리적 추론을 통해 모든 사물의 진리를 찾아나가야 한다.

- ① 귀납적 탐구 방법에 오류 가능성이 있는가?
- ② 이성은 도덕 판단과 행위의 유일한 기준인가?
- ③ 관찰과 실험을 통해 진리를 발견해야 하는가?
- ④ 연역적 추론을 통해 확실한 지식을 얻어야 하는가?
- ⑤ 형이상학적 방법을 통해 참된 진리에 도달해야 하는가?

17.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성(性)이 곧 이(理)이다. 마음에 있으면 성이라고 하고, 사물이나 사건에 있으면 이라고 한다. 성은 마음의 이, 정(情)은 성의 작용이며 마음은 성과 정을 통괄한다.  
 을: 이(理)란 마음의 조리(條理)이다. 이러한 이가 어버이에게 드러나면 효(孝)이고, 임금에게 드러나면 충(忠)이고, 벗에게 드러나면 신(信)이다.

<보 기>

ㄱ. 마음 밖에 따로 이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ㄴ. 도덕적인 삶과 실천에는 선후(先後)가 있다.  
 ㄷ. 사물에서 이치를 궁구하여 참된 삶에 도달해야 한다.  
 ㄹ. 선한 본성을 보존하고 사사로운 욕구를 제거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가)~(다) 사상의 입장에서 ㉠~㉣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고통이 소멸된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덟 가지 바른 ㉠도(道)를 실천해야 한다.  
 (나)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道)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다) 하늘이 명(命)한 것을 성(性)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道)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교(教)라 한다.

- ① (가): ㉠은 무명(無明)을 얻는 방법이다.
- ② (나): ㉡은 사람이 지켜야 할 인위적 규범이다.
- ③ (나): ㉢은 탐욕 제거로 불성을 깨닫는 것이다.
- ④ (다): ㉢은 인간의 삶과는 무관한 자연법칙이다.
- ⑤ (다): ㉢은 천명(天命)에 따르는 인간의 도리이다.

19. 고대 동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은 인의 단(端)이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의의 단이며,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단이고, 시비를 가리는 마음은 지의 단이다. 사람이 사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지(四肢)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을: 사람은 나면서부터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바라면서도 얻지 못하면 추구하지 않을 수 없고, 추구함에 일정한 기준과 한계가 없으면 다투게 되고 다투면 어지러워진다. 이에 성왕(聖王)은 어지러움을 싫어하여 예의를 정하였다.

- ① 갑은 사단을 확충하여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 ② 갑은 의(義)를 실천해 도덕적 기개를 함양해야 한다고 본다.
- ③ 을은 친소(親疎)의 구별 없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타고난 예(禮)를 토대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인간의 본성이 선이나 악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20. (가)를 주장한 근대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A의 행위를 옳다고 평가할 때, 그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도덕적 가치는 지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위를 바라볼 때 느끼는 시인이나 부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이때의 감정은 타인의 행복이나 불행을 함께 느끼는 것이다.
(나)	어느 추운 날 어린 아이가 가게 안으로 몰래 들어와 과자를 훔쳐 먹다가 주인 A에게 들켰다. A는 아이를 야단치는 대신 자리에 앉혀 과자를 먹게 했다. 배고픔에 지쳐 보이는 아이의 모습이 안쓰러워 아이를 보살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① 필연적인 인과 법칙에 따랐기 때문이다.
- ② 공감을 통해 타인에게 쾌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 ③ 이성이 행위의 직접적 동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 ④ 그 자체로 옳은 도덕 법칙을 준수했기 때문이다.
- ⑤ 직관에 따라 조건부적 의무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